



새로운 미술 향한 끝없는 성찰 작품 속에 시대의 모든 것 담아

① 세잔느의 회의(複製) 가을 가장 참예하게 고상했다. 그래서 그림에는 역사도, 과학도, 철학도, 정치도, 사색도, 사랑도, 기쁨도, 번민도, 두려움도, 슬픔도, 아름다움도, 신비도, 신성도, 불경건하게 대해 설명한다.
"그녀는 하나의 정물화를 위해 100번의 그림시간을 필요로 했고, 그녀의 초상화를 위해 200번 100번이나 그려놓았다. 우리가 그의 작품에서 느끼는 것은, 그는 세잔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인이요, 그에 대한 접근에 불복한 것만 뿐이다."

김은영의 이 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세잔느는 앤드루 로우의 '한반도의 예술'에서 세잔느의 '한반도의 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세잔느의 '한반도의 예술'은 '한반도의 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세잔느의 '한반도의 예술'은 '한반도의 예술'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장 바티스트 르노 '미술의 기원-양치기의 그림자를 더듬어가는 디부타데스'
▲알브레히트 뒤러 '폴밭'
▲도미아마 다예코 '가롱간 제사의 밤'
▲테오도르 제리코 '메두사의 뗏목'



미술로 시대를 읽다

본보 연재 **김은영의 '그림 생각' 100회 맞아**

2012년 9월 세잔느 '사과와 오렌지...'부터

선사시대 암각화·팝아트 등 동서양 작품

세월호·위안부·AI 등 사회 현안 꿰뚫어

매주 목요일 광주일보 3면에 연재되고 있는 '김은영의 그림 생각'(이하 그림 생각)이 어느덧 100회를 맞았다. 지난 2012년 09월13일 폴 세잔느의 작품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을 시작으로 매회 시대와 작가를 소개하면서 연재된 '그림 생각'은 지난 2년 4개월 동안 독자들에게 각별한 감동을 선물했다.

김은영 광주비엔날레재단 전시부장은 "그림 생각"이 독자들에게 자신을 되쳐보게 하는 각별한 여정의 매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는 말로 첫 회를 시작했다.

'그림 생각'은 매회 시대와 예술적 소통을 시도해온 동서양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비롯해 문학, 대중문화, 일상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들을 그림 에세이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선사시대 암각화부터 고대 로마 벽화, 팝아트, 포스터, 현대미술까지 동서양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이 독자를 만났다.

"미술은 '인간이 세계를 보는' 변화의 역사였고, 그림은 늘 그 시대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가장 첨예하게 고심했다"고 말하는 김 부장이 소개하는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느 시대의 작가든 지금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림 생각"은 위안부 문제, 세월호 문제, AI 피해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현안들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사태 해결을 위한 시사점들을 던졌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사태 이후에는 2회에 걸쳐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과 장 바티스트 르노의 '미술의 기원-양치기의 그림자를 더듬어가는 디부타데스'를 소개하면서 구조에 대한 희망,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던졌다.
'메두사의 뗏목'은 버려진 뗏목 위에서 죽을 싸우고 있는 생존자들이 필사적으로 환천을 호는 모습을 통해 슬픔과 분노를 묘사했고, '미술의 기원...'은 사랑하는 이를 잃

은 여인의 슬픔을 묘사한 작품이다.
지난 2013년 '위안부 기림비' 건립, '평화의 소녀상' 제작, 영화 '그리고 싶은 것' 등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을 때는 일본인의 만행을 일본 여성화가 도미아마 다예코의 '가롱간 제사의 밤-죽은 사람의 손이 돌아오는 날'을 통해 다시 이야기했다.
'강남 스타일', '정도전', '미생', '레 미제라블', '명량' 등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를 작품을 통해 재해석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이 신드롬을 일으킬 당시에는 외젠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통해 자유, 평등, 박애 등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웠다. 최근 광주 출신 윤태호 만

화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tvN 드라마 '미생' 열풍이 일었을 때는 김경민의 '첫 출근'을 소개하며 새내기 직장인의 설렘을 이야기했다.

일상에서 느끼는 정서들을 한기해볼 수 있는 작품들도 소개했다. 자연의 일부인 잔디한 덩어리에서 특별한 감동을 받아 그린 알브레히트 뒤러의 '폴밭'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가을 낙엽, 비, 여름 한낮에 바라보는 구름, 달빛, 봄날의 아련함 등 분주한 삶 한가운데서 잠시나마 소박하고 소중한 것들을 찾아한 탐포 쉬고 싶었다"는 것이 필자의 말이다.
또 낙원을 그린 화가 폴 고갱의 작품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와 밀레에게 영향을 받은 고갱이 역시 밀레의 신발 대성에서 자극을 받은 그림 '끈이 달린 구두'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 부장은 "미술을 통해서 시대를,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생활사, 문화사의 의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예총회장 선거, 최규철·임관표 '2파전'

〈현 회장〉 〈부회장〉

제9대 광주예총회장 회장 선거는 현 회장과 부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제9대 광주예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21일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규철(왼쪽) 현 회장과 임관표 현 수석부회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3선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최회장은 결국 지금까지 단임에 그쳤던 역대 회장들과 달리 예총 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3선에 도전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 오전10시 광주예총회관 회의실에서 후보자 및 대의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광주예총회관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예총 선거는 10개 협회당 대의원 8명씩 80명과 부회장단 6명, 특별위원 5명 등 모두 94명이 투표권을 가지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를 얻어야 회장으로 당선된다. 임기는 4년이다. /김미은기자 mekim@

조선시대 회화 새로운 접근

동아시아회화학회 '...교류와 소통' 펴내

조선시대는 한국 미술 역사상 회화가 가장 발달한 시대. 도화서를 통해 배출된 뛰어난 화원들과 사대부 문인화가들이 많은 작품을 창작했다.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독창적인 화풍이 형성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회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 책이 출간됐다.



국립광주박물관 박해운 학예연구관 등 홍익대 대학원 출신 회화사 연구자들의 스터디 모임인 동아시아회화연구회가 펴낸 '조선시대 회화의 교류와 소통'(사회평론)은 조선시대 회화 연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책이다.

동아시아회화연구회는 한국 미술과 중국, 일본 미술과의 비교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책에 실린 논문 9편의 비교연구의 틀은 중국 문학과 화보, 회화작품의 소장 등으로 세분된다. 이외에 조선시대의 문헌기록과 화평 등을 재분석해 특정 화가들의 위상이나 서화 인식 등을 살핀다. 또 초상화의 특정 유형에 관한 분석, 채용신과 그 후손에 관한 새로운 자료 소개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회화사 등에 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통문화관 상반기 토요상설공연팀 확정

프로젝트 앙상블 '런' 등 18개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 상반기 토요상설공연 무대 공연팀이 확정됐다.

전통문화관은 공모 과정을 통해 ▲판소리 ▲국악 기악 ▲퓨전국악 ▲전통무예 ▲풍물공연 ▲전통창작음악 ▲한국무용 ▲전통연희 분야의 다양한 작품을 선정했다.

24일 '런, 첫 번째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는 프로젝트 앙상블 '런' 등 모두 18개 팀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문화재단은 공연장 무료대관, 음향·조명 시설장비, 홍보물, 공연 스텝, 공연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토요상설공연은 지난 17일 전통문화관 자체 기획공연으로 열린 '신년 재수굿'을 시작으로 기획공연 6회, 공모 공연 18회 등 24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석당과 너털마당에서 펼쳐진다. 하반기 토요상설공연 작품은 5월중 공모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